

		<h1>보 도 자 료</h1> <p>11월 11일(수) 협약식 이후 배포</p>		<p>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</p>  <p>[개방 · 공유 · 소통 · 협력]</p>
배 포 일	11월 11일/ (총 4매)	담당부서	경인지역본부	
원 장	박 용 주	전 화	031-8035-7576(이효주 주임)	
경인지역본부장	정 진 울		070-8858-8905(조아라 주임)	

## 한국노인인력개발원-인천시-CJ대한통운 업무협약 체결

- 민관 협력을 통한 정부3.0 실천 -

- 지속가능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기대 -

- 한국노인인력개발원(원장 박용주)은 지난 11일(수)에 인천시(시장 유정복) 및 CJ대한통운(부사장 신동휘)과 실버택배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.
-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과 기업은 정부3.0 실천 의지를 담은 (가칭)인천실버종합물류를 설립하여 '기존 실버택배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보다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노인일자리 마련'하는데 협력하기로 다짐했다.
- 실버택배 전담조직으로 활동할 '인천실버종합물류'는 실버택배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지역별 배송거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매뉴얼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.

\*실버택배는 아파트·지역 거점으로 택배차량이 화물을 운송하면 어르신 인력을 활용하여 거점에서 분류해 인근 주택가나 아파트단지로 배송하는 형태로 진행되며, 배송장비로 친환경 전동카트, 자전거 등을 이용한다.

-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실버택배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새로운 아이템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기획을 지원한다.
- CJ대한통운은 안정적인 택배 물량공급을 위한 법인 운영 및 시니어 배송 장비를 제공하고, 인천시는 관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.
- 협약을 통해 설립될 인천실버종합물류는 인천지역의 실버택배 활성화와 더불어 전동자전거를 활용한 시니어 문화해설사업, 일상생활지원센터 등 관련 사업모델을 확대 보급하며 다양한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“지자체,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와 함께 고령사회에 대비한 좋은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”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.

<붙임 1> 행사 사진

<붙임 2> 협약 개요

붙임 1

행사 사진



**붙임 2**    **협약 개요**

**협약식 개요**

- 일시·장소 : 2015.11.11(수) 14:30, 인천시청 접견실(2층)
- 협약기관 : 인천시(시장), 한국노인인력개발원(원장), CJ대한통운(부사장)
- 협약내용 :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실버택배 활성화를 위한 「(가칭) 인천실버종합물류」 창립·운영 지원
- 주요참석자 : 6명
  - 인천시장(유정복), 여성가족국장(김명자) 등
  - CJ대한통운 부사장(신동휘), 시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(신원철)
  -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(박용주),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인지역본부장(정진율)
- 협약식 세부일정(안)

시 간	행사내용	비고
14:30 ~ 14:31(1분)	개식 및 내빈소개	노인정책과장
14:31 ~ 14:36(5분)	경과보고 및 협약 주요내용 보고	노인정책과장 CJ대한통운 김종원부장
14:36 ~ 14:41(5분)	인사말씀 및 협약서 서명	시장, 부사장, 개발원장
14:41 ~ 14:43(2분)	기념촬영	주요 참석자
14:43	폐 식	노인정책과장